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해양·관광 분과위원회 주요 제안내용

□ 독일마을 교통체계 개선방안[관광진흥담당관, 건설교통과]

1. 독일마을 내 일방통행 및 보행자도로 시행 요청

- 가. 독일마을 표지석부터 독일마을 관광안내소까지 일방통행 및 보행자도로 시행
- 나. 일방통행 대상자에 주민(봉화·물건·독일마을 거주민)과 상인을 제외하여 차량통제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2. 봉화주차장에서 독일마을 광장까지 관광객 이동수단 개발

- 가. 봉화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독일마을까지 이동이 불편하여 이용률이 저조함
- 나. 봉화에서 독일마을까지 관광객의 수송을 위한 모노레일 등을 운영하여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 불만 해소

3. 독일마을 주변 보행거리 조성을 위한 관광 아이템 개발

- 가.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도보로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음. 주차한 후 도보구간에 대하여 포토존, 꽃심기 등의 조경으로 다양한 관광아이템을 설치하여 도보가 관광이 되는 거리 조성으로 다변화된 관광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4. 독일마을 주민 자발적 참여 및 마을안길 보행자 도로 홍보

- 가. 독일마을 주민부터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관광객 안내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나. 독일마을 내 주 거리 외에도 마을 안길을 활용한 보행거리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차량 혼잡을 피하고 마을을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광 아이템이 될 것임

5. 관광 인프라 분산 조성 및 국도 3호선 확장 공사 시행 요청

가. 삼동 물건 방면에 관광 인프라가 집중되어 조성됨에 따라 창선-삼천포대교에서 지족 방면의 차량 정체가 심각함

나. 남해의 관문인 국도 3호선의 잦은 정체로 관광객들이 남해에 머무르는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관광을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도 3호선의 확장을 실시하여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람

다. 또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관내 전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하여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 주기 바람

6. 독일마을 교통체계 개선 해결방안 시행 전 시범기간 운영 요청

가. 독일마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한번 시행하게 되면 쉽게 변경하기 힘든 대안들이 많음

나. 많은 예산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 대안의 시범 실시기간을 운영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바람